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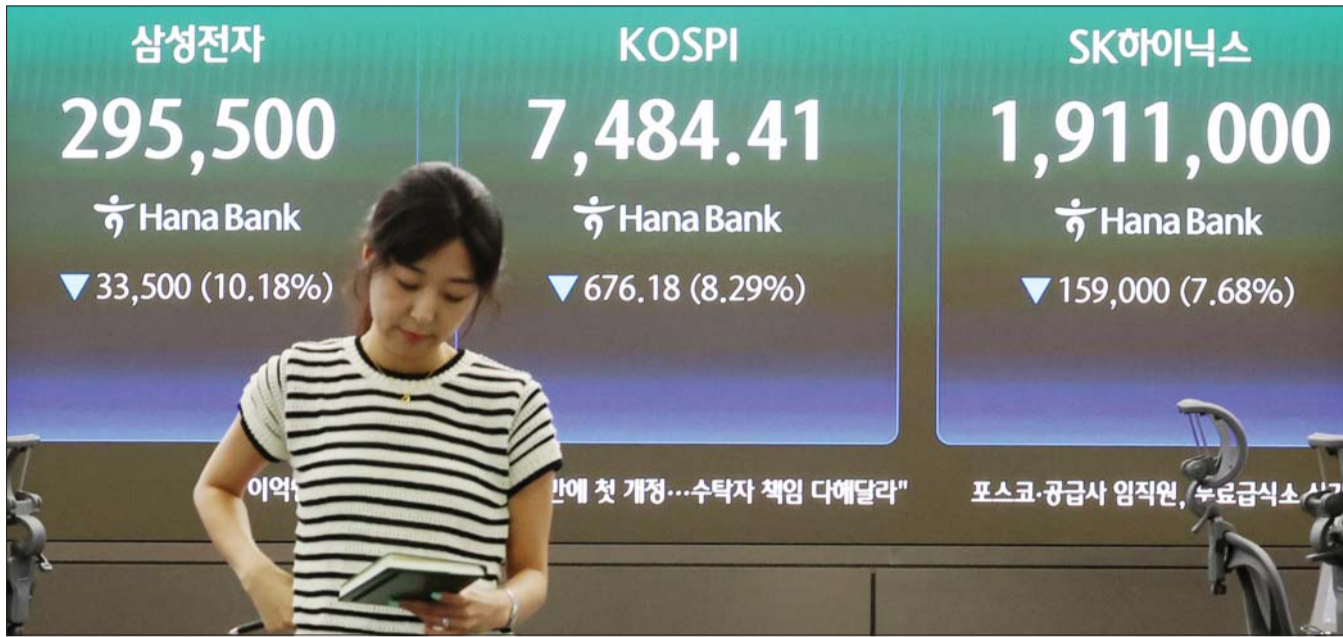
美 반도체 쇼크, 금리·환율 악재... “변동성 뒤 회복 기대”

브로드컴 전망에 AI고점 우려 확산
美 고용 호조로 금리 부담 가중
外人 자금 이탈 압력에 증시 흔들
유가·금리 상승도 투자심리 압박
전문가 “펀더멘털 훼손은 제한적”

미국발 '반도체 쇼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고환율 등 복합 악재가 국내외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60원 선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기업들의 실제 가치나 실적에 비해 과다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충격에 불과하다는 엇갈린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美 반도체 쇼크, 금리·환율 까지

8일 폭락은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연간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높아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끌어 온 반도체 호황이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예상을 크게 웃돈 미국의 고용 지표도 찬물을 끼얹었다. 미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8만명)를 크게 웃돌았다. 탄탄한 고용 상황 탓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사라졌다. 오히려 연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시중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4%, 30년물 금리는 5.007%까지 오르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4.5%와 5.0%를



코스피가 전 거래일(8160.59)보다 676.18포인트(8.29%) 내린 7484.41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각각 돌파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5.8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3.94%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불안은 더 어이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상은 성공을 망치려는 시도”라며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반대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메리클은 지난 5일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기존보다 늦췄다. 당초 2026년 12월과 2027년 3월로 예상했던 두 차례의 인하 시점을 각각 2027년 6월과 12월로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중동 지역 리스크가 다시 커지며 금리를 자극하는 유가발 물가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 유 8월물 선물은 5%대 급등해 97달러를 넘어섰으며,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 산원유(WTI) 선물도 4%대 올라 94달러를 웃돌았다.

외국인 ‘팔자’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한 것 역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핵심 원인이다. 6일 새벽 마감한 야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61.50원까지 치솟으며 1560선마저 뚫었다. 이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기계적 리밸런싱으로 환율 상승을 주도한 외국인 역송금 수요에 역외 투기적 수요가 더해져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초대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자금 블랙홀이 될 것이라 걱정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스페이스 X·앤티로픽·오픈AI 3개사의 IPO만으로

미국 거래소에 약 4조달러(약 6237조원)의 시가총액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알파벳이 AI 데이터센터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해 다음 분기에 850억달러(약 13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어서 신규 공급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메타플랫폼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펀더멘털 변함없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포지션 헤지와 과밀 거래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 골드 호스 펀드 매니저인 트는 익스포저(투자 노출액)를 줄이고 파생상품 보호 장치를 추가했다.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M&G 인베스트먼트도 투자를 인공지능(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각화하기 위해 메모리 파운드리 보유

비중을 줄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탄비트 산두 글로벌 수석 파생상품 전략가는 “논쟁은 코스피 스토리가 여전히 매력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수익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서 어떻게 투자를 유지하느냐”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한국 주식형 펀드인 아이셰어즈 MS CI 한국 ETF(티커명 EWY) 옵션 거래는 수요가 상승 익스포저에서 하락 방어로 이동해 투자자들이 점점 더 신중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WY는 지난 5일 미국 시장에서 14% 급락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을 예상하지만, 곧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례적으로 극심한 쏠림현상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코스피 레밸업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IT하드웨어, 가전 등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 자리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1~2주간 극심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 매집하거나 버티기 전략이 유효하다”면서 “6월 후반 2분기 프리어닝시즌 돌입과 함께 코스피 저평가 매력에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연준의 정책 기조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금리와 환율, 성장주를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6월 중·하순부터 2분기 실적 프리뷰가 시작되고, 7월에는 수주·백로그·고대역폭메모리(HBM) 수익성 등 우량 AI 인프라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장중 1550원 돌파... 당국 “쏠림 강력 대응”

15거래일째 1500원대 고공행진
중동 리스크에 동아시아 통화 약세
원화값 2월 말 대비 6.9% 하락
외국인 순매도에 자금이탈 압박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0원을 위협하며 원화의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외환당국은 최근의 환율이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 대비 과도하게 높게 형성됐다고 진단하는 한편, 과도한 변동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드러진 ‘원화 약세’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3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주간 증가인 1539.1원보다 4.1원 내렸다. 이날 환율은 15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겼으며, 개장 직후에는 1555.2원까지 상승해 세계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엔화값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0원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을 넘기며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이후 최고(엔화값 최저) 수준으로 치솟았고, 2025년 달러당 29대만달러까지 내렸던 달러·대만달러 환율도 달러당 32대만달러까지 상승(대만달러값 하락)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한 동아시아 3국은 차량·반도체 등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산 원유로 충당한다. 그러나 원화값은 엔화나 대만달러보다가 파른 통화 가치 하락을 겪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엔화와 대만달러가 중동사태 발발 이전인 2월 말과 비교해 각각 2.7%, 0.9%의 달러화 대비 통화

값 하락을 겪은 반면, 원화는 6.9%의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외환시장 원·엔 환율은 100엔당 957.46원까지 올라 작년 6월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원화값 최저)까지 치솟았다.

◆‘자금이탈’ 영향 지속

시장에서는 최근의 원화 약세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한다. 지난해 말 시작된 ‘반도체 사이클’이 코스피를 가파르게 끌어올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실현과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서면서 원화값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인 지난 5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순매도액은 70조원 이상이다. 특히 계속된 순매도에도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의 36%보다 높은 40%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원화값 하락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발(發) ‘반도체 쇼크’도 최근의 급격한 원화값 하락의 원인이 됐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지난 3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 및 3분기 전망치를 발표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측을 웃돌았지만, 3분기 AI 반도체 관련 전망치는 시장 기대치인 170억 달러에 못미치는 160억 달러로 제시됐다.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는 시장 불안감은 관련주의 급락을 불러왔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관련주 매물이 쏟아져 원화값 하락의 재료가 됐다.

◆외환당국, 적극대응 시사

외환당국은 이날 장중 달러당 1550원 수준까지 치솟은 최근의 환율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벗어난 과도한 환율로 평가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외환시장의 환율은 수급요인 이외에도 NDF(역외선물환거래)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며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이 쏠림을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과 이형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공동 명의로 공지됐다.

원화값이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달러화의 강제 요인이 분명하고 원화의 약세 요인도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단기간 환율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본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반도체 주가를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 속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경제감 등이 달러화 강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환율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 재원은 부재하고 중동사태 불확실성도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남승진 기자 asj1231@



/남승진 기자 asj1231@

